

영어 부정관사의 문법적 본질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영어 교육에의 함의*

양현권 · 김낙훈 · 성민창
서울대학교

A socio-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grammatical nature of the English indefinite article: Implications for English teaching

Yang, Hyun-Kwon** · Kim, Rakhun · Sung, Min-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Mar 6 2017
Revised Mar 28 2017
Accepted Mar 29 2017

Keywords:

English indefinite article,
indefiniteness,
social-psychology,
educational grammar

주제어:

영어 부정관사, 비한정성,
사회심리학, 총칭,
교육영문법

ABSTRACT

The paper explores the grammatical nature of the English indefinite article, employing Nisbett's socio-psychological framework. It reveals that this category serves to encode individuated oneness of a countable noun. In performing this task, the paper suggests pedagogical implications of its main proposal for teaching the English indefinite article to Korean-speaking English learners.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Nisbett의 사회심리학의 틀을 원용하여 영어 부정관사의 문법적 본질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이 문법범주의 가장 핵심적인 자질이 가산명사의 개체 단위를 나타냄을 밝힌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의 주된 제안이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에게 영어 부정관사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지니는지를 제시한다.

* 본 논문의 심사본에 대한 논평자들의 귀한 의견은 논지를 깊고 다듬는데 의미 있는 바탕이 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yhkeun@snu.ac.kr

I. 서론

영어의 부정관사는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 문법 범주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법 항목으로 여겨져 왔다.

이른바 학교문법(school grammar), 교육문법(pedagogical grammar) 및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의 체계에서는 흔히 영어의 부정관사의 쓰임새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다음은 그 가운데 주요한 항목을 문용(1987)에 바탕을 두어 정리한 것이다: Celce-Murcia와 Larsen-Freeman(1999), Quirk, Greenbaum, Leech와 Svartvik(1985), Willis(1991).

- (1) 담화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명사 앞에 사용되어, 정해지지 않은(indefinite) 대상을 나타낸다.

They bought a house.

I want a car.

- (2) 'one'이란 뜻을 나타낸다.

He didn't say a word.

May I have an apple?

- (3) 보어(complement)로 사용되는 명사구 앞에 쓰여, '속성'을 서술한다.

Tom is a fool.

She once was a beauty.

- (4) 어느 종류·종족 전체를 나타낸다.

A cat can see in the dark.

An insect has six legs.

- (5) 'per'란 의미를 갖는다.

Take a medicine four times a day.

The car ran at the speed of 80 miles an hour.

- (6) 'the same'이란 뜻을 나타낸다.

The two boys were of a size.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용법 가운데 (1)~(4)의 용법에 초점을 둔다. 그 까닭은, 본 연구는

부정관사의 핵심적 본질을 살펴보는데 그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잘 알려진 것과 같이 (5)는 주로 수량사와 관련된 한정된 맥락에서 관찰되는 용법인 한편 (6)은 특징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는 현대영어에서는 거의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용법과는 대조적으로, (1)~(4)의 용법은 특정 표현 또는 특정 구문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표현과 구조-이른바 개방맥락(open context)-에서 두루 관찰되는 특징을 지닌다.

위 (1)~(4)의 주요 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질문 (7)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데 이를 통해 영어의 부정관사의 문법적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7) 영어 부정관사의 주요용법들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에 인용된 Nisbett(2003)의 사회심리학적 제안에 주목한다:

(8) Nisbett(2003: 1)

More than a billion people in the world today claim intellectual inheritance from ancient Greece. More than two billion are the heirs of ancient Chinese traditions of thought. The philosophies and achievements of the Greeks and Chinese of 2,500 years ago were remarkably different, as were the social structures and conceptions of themselves. And, as I hope to show in this chapter, the intellectual aspects of each society make sense in light of their social characteristics.

Nisbett(2003)는 서유럽인과 동아시아인의 사고 체계의 차이를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의 사회구조의 차이와 연계하려는 사회심리학적 노력이다. Nisbett에 따르면, 서유럽인과 동아시아인의 지적 특징(intellectual aspects)—예를 들면, 언어 능력의 특징—은 이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서로 다른 두 사회의 특성(social characteristics)과 깊이 연관된다. 이 연구에서는 Nisbett의 이러한 제안에 바탕을 두어 영어 부정관사의 문법적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어(를 비롯한 동아시아 언어)에는 왜 부정관사가 문법범주로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9) 한국어에 부정관사가 문법범주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탐구를 통하여 (가) 영어의 부정관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학습자에게 학습하기가 어려운 까닭을 살펴봄과 아울러 (나) 이에 바탕을 두어 영어 부정관사의 체계적 학습과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은 본 논문의 주된 구성이다. 먼저 2절의 전반부에서는 용법 (1)-'정해지지 않음'을 나타

내는 용법-이 영어의 부정관사의 핵심적 용법이 아닐 수 있음을 논의한다. 2절의 후반부에서는 용법 (2)-'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용법-이 영어의 부정관사의 본질적 특성일 가능성을 탐구한다. 본론인 3절의 전반부에서는 용법 (3)-'속성'과 연관된 용법-의 특성이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용법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이어 3절의 후반부에서는 용법 (4)-'대표단수'로서의 용법-의 특성 또한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용법에서 연유함을 논의한 다음, 개체 중심의 사회심리적 체계가 문법범주로서의 부정관사의 존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다. 본문의 중반부인 4절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가 영어 부정관사의 학습과 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와 함의를 제시하며, 5절은 마무리에 해당한다.

II. 영어 부정관사의 핵심적 본질

(10)에는 부정관사의 가장 대표적인 쓰임새가 예시되어 있다.

- (10) a. They bought a house.
 b. There was a pretty doll on Tom's table.

흔히 부정관사는, 위 문장에 예시된 것처럼, 명사 표현 앞에 놓여 '정해지지 않음(indefiniteness)'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관사의 이러한 쓰임은 다음 예문에서의 정관사의 쓰임과 대조된다.

- (11) a. The house had a large living room and three bedrooms.
 b. The pretty doll is a birthday present for Tom.

(11)에서 정관사가 나타내는 '정해짐(definiteness)'은 (10)에 제시된 예문들에서 부정관사가 나타내는 '정해지지 않음'과 뚜렷이 대조된다.

그런데 부정관사가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법 장치라는 이러한 이해는, 다음 예문의 명사구-복수형 명사구 및 물질(을 지칭하는) 명사구-가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조화롭지 못하다.

- (12) John went out to buy milk.
 (13) I have already put spoons on the table.

위 예문들에서 'milk'와 'spoons'는 각각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들 명사표현 앞에는 부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만약 '정해지지 않음'이 부정관사에 의해 표시된다면, 'milk'와 'spoons'라는 표현 앞에 부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표현이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Lyons(1999)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에는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법범주가 없다고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정해짐'과 '정해지지 않음' 가운데 전자만을 문법범주로 나타내는데, 바로 한정 지정사(definite determiner)—정관사 및 지시형용사 등—가 이 문법장치에 해당한다. 더불어 영어에는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법장치가 없으며, (한정 지정사에 의해) '정해짐'이 표시되지 않은 명사구 표현들이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14) Lyons(1999)

Indefinite noun phrases are characterized by the non-occurrence of a definite determiner.

이 연구에서는, Lyons의 이러한 제안을 따라, 'a(n)'을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법장치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즉, (10a) 예문에서 'a house'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나타내는 까닭은, 이 명사표현에 '정해짐'을 나타내는 문법범주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a(n)'의 쓰임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서는 용법 (1)—'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용법—을 이 문법범주의 특징적 성질로 인정하지 않는다.¹⁾

한편 다음에는 'a(n)'의 두 번째 용법에 대한 예시가 재인용되어 있다:

(15) 'one'이란 뜻을 나타낸다.

He didn't say a word.

May I have an apple?

위 예들에서 'a(n)'은 'one'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함께 쓰이는 명사표현이 '단일개체임(oneness)'을 나타낸다. 'A(n)'의 이러한 특질은, 이 문법 범주가 역사적으로 'one'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는 Quirk et al.(1985)의 언급에 의해 뒷받침된다.

(16) Quirk et al.(1985)

The indefinite article derives historically from the unstressed form of one, and in present-day English there are still many contexts in which this numerical function is uppermost.

1) 이러한 관점은 Celce-Murcia & Larsen-Freeman(1999: 272)에도 제시되어 있다

‘A(n)’에 대한 이러한 제안은 Lyons(1999)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견해를 따라 이 문법범주를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문법장치로 이해한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a(n)’의 핵심적 본질을 Nisbett(2003)의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주된 요지는 이 문법범주의 주된 용법이 한결같이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특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III.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a(n)’의 주요 용법

Nisbett(2003)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철학 체계 및 서유럽인의 인식 체계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개체’로서의 대상에 초점을 둔다.

(17) Nisbett(2003: 10)

... more basic to Greek philosophy is its background scheme, which regarded the object in isolation as the proper focus of attention and analysis. Most Greeks regarded matter as particulate and separate—formed into discrete objects—just as humans were seen as separate from one another and construed as distinct wholes.

Nisbett에 따르면, 이러한 특질은 고대 그리스를 비롯한 서유럽 사회에서 인간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개별 단위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두는 관점과 연관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무리(mass) 중심으로 이해한다. Nisbett에 따르면, 이들 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개별적 단위보다는 무리로서의 대상에 초점을 둔다.

(18) Nisbett(2003: 18)

For the Chinese, the background scheme for the nature of the world was that it was a mass of substances rather than a collection of discrete objects.

이러한 특질은 동아시아에서 인간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상호 연결체로서의 집단에 초점을 두는 관점과 연관된다.

(19) Nisbett(2003: 19)

Chinese social life was interdependent and it was not liberty but harmony that was the

wachword—the harmony of humans and nature for the Taoists and the harmony of humans with other humans for the Confucians. ... The Chinese philosopher would see a family with interrelated members where the Greek saw a collection of persons with attributes that were independent of any connections with others.

이 연구에서는 서양언어로서의 영어에는 부정관사가 발달되어 있는 한편 동아시아 언어로서의 한국어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자에는 부정관사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까닭은 (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개별화된(individuated) 개체에 초점을 두는 한편, (나) 부정관사의 핵심적 본질—‘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용법—이 바로 이 인식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후자에서는 부정관사가 문법범주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그 까닭은 (가) 부정관사의 핵심적 본질—‘단일개체임’을 나타냄—이 사물에 대한 개체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한편, (나)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개별화된(individuated) 개체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삼아, ‘a(n)’의 주요한 쓰임새가 단일 개체를 나타내는 용법에서 비롯됨을 살펴 보는데 초점을 둔다.

A. ‘A(n)’의 ‘속성’ 관련 용법

다음의 첫 두 문장에는 ‘a fool’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20) 가. We have a fool in the class.

나. He felt a fool.

다. He felt foolish.

그런데 (20가)에서의 ‘a fool’은 개체—‘one fool’이라는 단위 개체—를 나타내는 반면 (20나)에서의 ‘a fool’은 개체라기보다는 속성을 나타낸다. 즉, 두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과 그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

Quirk et al.(1985: 273)에서는 (20나)에 예시된 부정관사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데, 이 쓰임새가 바로 부정관사의 세 번째 용법에 해당한다.

(21) The indefinite article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complement function in a clause, or more generally with noun phrases in a copula relationship. Here it has a descriptive role (similar to that of predicative adjectives), rather than a referring role.

즉, 부정관사가 보어로서의 명사구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명사구가 속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은 위 (17)에 제시된 Nisbett의 인용문 바로 다음에 제시된 문장을 가져온 것으로, 부정관사의 세 번째 용법과 관련이 깊다. 괄호 안의 표현은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삽입한 것임.

(22) Nisbett(2003: 10)

Once the object [in isolation] is taken as the starting point, then many things follow automatically: The attributes of the object are salient; the attributes become the basis of rule construction.

서유럽문화권에서는, 앞선 인용 (17)과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개체 중심적 인식을 중시한다. 그런데 위 인용 (22)에 제시된 Nisbett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개체 중심적 인식은—자연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관찰 대상의 속성(attributes)에 초점을 두도록 이끈다. 즉, 서유럽 문화권에서는 자연을 개체 중심으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인식 방식은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속성에 초점을 두게 한다.

‘개체 중심 인식’과 ‘속성 인식’의 연관성에 관한 Nisbett의 이러한 제안은, ‘속성’을 나타내는 부정관사의 용법이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부정관사의 용법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유럽 문화권에서는 개체 중심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체의 본질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데, 이는 곧 서양언어로서의 영어에서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부정관사의 성질이 ‘속성’을 나타내는 부정관사의 성질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조화롭다는 것이다.

B. ‘A(n)’의 ‘대표단수’ 관련 용법

이제 다음으로 ‘a(n)’의 ‘대표단수’ 용법에 대해 살펴보자. 이 용법은 ‘a(n)+명사’가 해당 명사 전체를 추상적으로 범주화하여 나타내는 쓰임새를 일컫는다.

(23) A terrier is very faithful.

즉, 위 예문에서 ‘a terrier’는 ‘terrier’종을 추상적 개체로 범주화하여 그 종족 전체를 나타낸다.

‘A(n)’의 ‘대표단수’ 용법과 관련하여, Nisbett의 다음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4) Nisbett(2003: 9)

A routine habit of Greek philosophers was to analyze the attributes of an object—person, place, thing, or animal—and categorize the object on the basis of its abstracted attributes. They would then attempt to understand the object’s nature and the cause of its actions, on the basis of rules governing the categories.

Nisbett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철학과 서유럽 문화권에서는 사물의 추상적 속성에 근거하여 대상을 범주화하는데, 이때의 범주화의 기준 단위는 개체—an object—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물을 (속성에 근거하여) 추상적으로 범주화하는 기준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 개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Nisbett의 추상적 범주화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a(n)’의 ‘대표단수’ 용법이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용법에서 연유함을 시사한다. 즉, 서양문화권에서는 개체(의 속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해당 개체를 추상적으로 범주화하는데, 이는 곧 서양언어로서의 영어에서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부정관사의 특징이 ‘대표단수’를 나타내는 부정관사의 특징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조화롭다는 것이다.

C. 개체 중심의 사회심리적 체계와 문법범주로서의 부정관사의 존재

이상을 종합하면, 영어의 ‘a(n)’은 본질적으로 ‘(단일)개체(임)’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한편 영어의 ‘a(n)’은 속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서양인의 사회심리 체계에서 사물의 속성을 개체에 초점을 두어 인식하는 경향에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영어의 ‘a(n)’은 대표단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서양인의 사회심리 체계에서 (개체의) 속성에 근거하여 사물을 범주화하는 경향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정관사의 문법적 특징들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5) ‘a(n)’의 문법적 특징들의 관계

개체 ⇒ 속성 ⇒ 대표단수

(A ⇒ B: A의 사회심리적 인식이 B의 사회심리적 인식의 기반임)

한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등의 동아시아 언어에는 부정관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상에 제시한 본 연구의 논지에 따르면, 이들 언어에 부정관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찰 대상을 개체 중심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한국어에 부정관사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을 살펴본다.

다음 (26)과 (27)은 (28)과 (29)의 영어표현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26) 한 의자

(27) 한 요리사

(28) one chair

(29) one cook

(26)과 (27)은 자연스럽지 않다. (26)과 (27)이 부자연스러운 까닭은 다음 예들이 부자연스러운 까닭과 다르지 않다.

(30) 두 의자, 두 요리사

다음은 이른바 구구조(phrase structure) 분석에 근거하여 (28)과 (29)의 통사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Haegeman(1991) 등 참고.

(31(=28)) [NP one [N chair]]

(32(=29)) [NP one [N cook]]

(31)과 (32)의 구구조는 이른바 내심(內心; endocentric)구조로서, 필수요소로서의 명사 핵(head)과 의존성분으로서의 수사(數詞)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한편 (26) 및 (27)은, (28) 및 (29)과는 달리, 부자연스러운데, 그 까닭은 한국어에서는 수사(數詞) 표현이 명사구의 내심구조적 성분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²⁾

이러한 논의를 본 논문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인 (33)에 적용하면, (34)와 같은 논지를 얻을 수 있다.

(33(=9)) 한국어에 부정관사라는 문법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34) (가) 부정관사는 본질적으로 '단일 개체임(oneness)'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인 한편 (나) 단

2) 표준적인 구구조에 따르면, 부정관사가 사용된 명사구 (가)는 (나)와 같은 내심 구조를 지닌다.

(가) a chair

(나) [NP a [N chair]]

일개체라는 개념은 ‘하나’라는 수(數)를 전제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수(數) 표현이 명사구의 내심구조적 성분으로 쓰이기 어렵기 때문이다.^{3) 4)}

물론 한국어의 명사구의 내심 구조에 수(數) 표현이 나타나기 어려운 까닭은, Nisbett의 사회심리학적 이해에 따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체계가 개체 중심적이지 않고 무리(mass) 중심적이기 때문이다.⁵⁾

3) 다음 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어에서는 명사구의 수(數)적 정보를 이른바 분류사 구문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가. 철수가 의자를 한 개 샀다.

최기용(2001) 등의 한국어 분류사 구문에 대한 통사적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의 분류사구는 명사구의 내심구조적 성분이 아니라 부가적 성분이다.

4) 다음과 같은 문장은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지만, 간혹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 철수가 한 개의 의자를 샀다.

표준적인 구구조 분석에 따르면, 이 문장에 사용된 명사구 ‘한 개의 의자’는 다음 구조를 지닌다: Classifier P: 분류사구; Num: 수사.

(나) [NP [PP [ClassifierP [Num 한] 개] 의] [N 의자]]

이 구조에서 수를 나타내는 수사 표현 ‘한’은 전체 명사구 ‘한 개의 의자’의 내심구조적 성분이 아니라 ‘한 개’ 또는 ‘한 개의’라는 구조의 내심구조적 성분이다. 위 예에서 전체 명사구의 내심구조적 성분은 핵인 ‘의자’와 ‘의존성분’인 ‘한 개의’이다.

5) 다음 (가)와 (나)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예로서, 각각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의 예 (26)에 해당한다.

(가) 一椅子 [yì yǐzi]

(나) 一椅子 [ich isu]

이 예들은, 한국어의 예 (26)이 부자연스럽듯이, 자연스럽지 않다. (26)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분석을 (가)와 (나)에 적용하면, 이 예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까닭은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명사가 수사와 더불어 명사구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와 일본어에 부정관사가 문법범주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제시할 수 있다.

(다) 부정관사는 본질적으로 ‘단일개체임(oneness)’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인데, 중국어와 일본어의 명사구에는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내심구조적 성분으로 쓰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IV. 영어 교육에의 함의와 적용

영어의 부정관사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항목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자들에게도 부정관사의 학습이 어렵다는 관찰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부정관사의 대표적 용법을 언어 형식의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래 (35)~(37)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부정관사 항목을 모두 옮겨온 것으로, (35)는 부정관사의 개체 관련 용법에 해당한다. 논의의 초점이 되는 항목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됨.

(35)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a(n)'의 개체 관련 용법 항목

1. Kathy is from London.

A boy/The boy/The (two) boys ran in the park.

Water is very important for life.

The water in this water is very clear.

.....

한편 (36)은 부정관사의 대표단수 용법에 해당한다.

(36)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a(n)'의 대표단수 용법 항목

3. **A lion is brave.**

The lion is brave.

Lions are brave.

.....

마지막으로 (37)은 부정관사의 속성 용법에 해당한다.

(37)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a(n)'의 속성 용법 항목

10. The baby cried.

She stayed in bed.

He is a teacher.

You look happy today.

.....

부정관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항목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어 살펴본 항목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교육과정에 바탕을 두어 (공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38) 교육과정에 제시된 부정관사의 용법 가운데, 어떤 용법이 보다 핵심적이고 기본적인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39) 교육과정에 제시된 부정관사의 용법 가운데 어떤 용법을 먼저 제시할 것인가 또는 어떤 용법에 주된 초점을 둘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부정관사의 본질적 특징을 개체 관련 용법으로 이해하는 한편 부정관사의 주요 문법적 특징들 간의 관계를 (25)와 같이 분석하는 바,

(25) 'a(n)'의 문법적 특징들의 관계

개체 \Rightarrow 속성 \Rightarrow 대표단수

(A \Rightarrow B: A의 사회심리적 인식이 B의 사회심리적 인식의 기반임)

이에 근거하면 (39)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40) 부정관사의 개체 인식적 용법이 보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따라서 다른 용법에 비하여 먼저 제시될 수 있다. 또는 개체 인식적 용법에 주된 초점이 주어질 수 있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부정관사에 교육의 초점을 둘 때 이 문법항목과 연관되어 고려되어야 할 문법항목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부정관사는 흔히 정관사와 연관되어 제시되기도 하고 명사의 가산성과 연관되어 제시되기도 한다. 부정관사가 정관사와 연관되어 제시되는 경우는 흔히 부정관사의 핵심적 본질이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반면 정관사의 핵심적 본질이 '정해짐'을 나타낸다는 이해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원용하는 관점이다.

(41)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a(n)'의 용법 예시

1. Kathy is from London.

A boy/The boy/The (two) boys ran in the park.

Water is very important for life.

The water in this water is very clear.

.....

즉,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위 두 번째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A boy를 The boy와 대비하고 있는데, 이는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정관사와 '정해짐'을 나타내는 '정관사'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어에는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법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지배적 견해인 바, 이에 따르면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정해지지 않음'과 '정해짐'이라는 대조적 맥락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부정관사는 명사의 가산성(countability)이라는 항목과 밀접히 연관되어 제시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의 주된 논지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부정관사의 핵심적 본질이 개체 표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명사 가운데 부정관사에 의해 개체 표시가 가능한 명사가 이른바 가산명사(countable noun)라는 점에서 보면, 부정관사의 개체 표시 특성이 명사의 가산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정관사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제시될 수 있는 문법 항목은 명사의 가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3.4절에서 한국어 명사구의 내심구조에는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볼 때 가산성에는 수(數) 개념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한국어의 명사(구)에서는, 영어의 명사구에서와는 달리, 가산성이 핵심 자질이 아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외국어습득 이론에 따르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특질이 목표어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언어 특질을 학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 목표어 명사구의 가산성을 학습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언급하였듯이, Nisbett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사물과 자연을 인식함에 있어 개체 중심이 아니라 집단 중심적인 특징을 보인다. 한국인의 이러한 특징은 이들이 영어 부정관사의 학습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까닭은 한국인들의 사회심리적 인식 체계는 개체 중심적이 아니라 집단 중심적인데 비하여 영어 부정관사의 학습에서는 개체 중심적인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부정관사 학습을 명사의 가산성 학습과 연계하는 가능성"을 "개체 인식"에 초점을 두어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제안은 한국인 영어학

6) 영어 명사의 가산성에 대한 체계적 논의에 대해서는 문용(1987: 220)을 참고하기 바람.

습자들이 영어 명사의 가산성 및 부정관사의 학습에서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⁷⁾⁸⁾

V. 마무리

본 연구는 Nisbett(2003)의 사회심리학적 틀을 원용하여 영어의 부정관사의 주요 문법적 쓰임새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영어의 부정관사의 핵심적 본질이 ‘단일개체’ 표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어에 부정관사가 문법범주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을 밝히는 데에도 일정한 초점을 두었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 (가) 한국어의 명사구의 내심구조에는 ‘수(數)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될 수 없는 한편 (나)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단일개체’라는 수적(數的) 정보를 지닌 문법범주이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탐구 성과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에게 영어의 부정관사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데 의미 있는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단일)개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어 “영어의 부정관사 학습을 명사의 가산성 학습과 연계함”으로써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이 두 항목의 학습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바탕을 탐색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5). *English Curricul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문용 (1987). **고급영문법해설**. 서울: 박영사.
 {Moon, Y. (1987). *Advanced English grammar*. Seoul: Bakyongsas.}
 양현권 (2008a). 영어 정관사에 대한 교육문법적 이해. **외국어교육연구**, 11, 66-83.

- 7) 외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문법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현권(2008a) 및 양현권(2008b)를 참고하기 바람.
- 8) 부정관사와 명사의 가산성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러한 연관성은 이들 항목의 외국어학습 과정에서도 관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익명의 논평자가 심사의견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습자 코퍼스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 {Yang, H. K. (2008a). A pedagogical understanding of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An 'educational grammar' perspective.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1, 66-83.}
- 양현권 (2008b). 교육 문법론과 영어 교육. 양현권, 정영국 (편), **교육영문법의 이해** (pp. 11-34). 서울: 한국문화사.
- {Yang, H. K. (2008b). Educational grammar and English education. In H. K. Yang & Y. K. Jeong (Eds.), *Understanding educational English grammar* (pp. 11-34). Seoul: Hangukmunhwasa.}
- 최기용 (2001). 한국어 수량사 구성의 구조와 의미. **어학연구**, 37(3), 445-482.
- {Choi, K. Y. (2001).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non-genitive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7(3), 445-482.}
-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Boston: Heinle & Heinle.
-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UK: Blackwell.
- Lyons, C. (1999). *Definitenes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New York: Free Press.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Willis, D. (1991). *Collins cobuild student's English grammar*.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양현권 (yhkeun@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직 중이며, 교육영문법, 영어통사론 및 영어학습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 옵니다.

김낙훈 (kimrhee02@snu.ac.kr)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교육영문법, 구문문법, 및 영어습득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 옵니다.

성민창 (potamin3@snu.ac.kr)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교육영문법, 구문문법 및 말뭉치응용언어학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 옵니다.